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재미있는 일’, ‘배울 수 있는 일’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joonchigirl@makehope.org)

요약

-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30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일’의 기준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있는 일’로 나타났다.
- 이 설문조사에는 총 3,292명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 20대가 44.9%, 30대가 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이 중에서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응답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전반적 만족도’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다중선형회귀분석, 신뢰수준 95%).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 항목이었다.
- 반면,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묻자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 등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일’ 기준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좋은 일’에 대한 20~30대 개인들의 생각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이직·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등이 꼽혔다.
- 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물은 뒤, 그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복수응답 중 하나로 꼽은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1371명)였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는 42.1%(1079명)이었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는 질문에
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였다. 그에 비해
서 부정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 등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 연구의 시사점은 ‘좋은 일’에 대해 20~30대가 생각하는 기준과 기존 한국 사회의 기준 사이에 괴
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개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좋은 일’의 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좋은 일’ 성향을 파
악한 뒤 그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건 ‘좋은
일’에 맞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도록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하겠다.

키워드 일, 노동,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장래희망

I. 20~30대에게 물어본 '좋은 일의 기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있는 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노동시간이 적당한 일...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사이에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좋은 일'의 기준들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첫째, 참여자들이 질문의 각 항목에 응답하면서 스스로의 '좋은 일' 기준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기준'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의 상(像)'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위한 것이었다.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이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아 많은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 연구는 출발했다. 2015년 말부터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2차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3,292명이 참여했다. 1차 설문조사¹⁾에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적지만, 응답 항목 수가 최대 88개에 달하는 상세한 설문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참여도였다.

조사가 진행된 2016년 7~12월 사이에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가 청소년, 학부모, 취업준비생, 비영리 종사자, 40~60대 일 전환 희망자 등 대상으로 총 5차례 개최됐다.

이 내용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연재 형식으로 소개됐으며, 이를 읽은 네티즌들이 각 콘텐츠 하단에 위치한 온라인 설문조사 톨을 클릭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3,29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0대가 1,479명(44.9%), 30대가 1,207명(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 20~30대 응답자 중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1) 2015년 11월 17일~2016년 1월 31일 사이 진행돼 15,399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1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과 세부 요건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6가지 측면 중에서 적정 노동시간, 스트레스 없는 적경 등을 뜻하는 '근로조건'(48%)을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의 요건으로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의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http://happylog.naver.com/makehope/post/PostView.nhn?bbsSeq=71867&artclNo=123462547413>

[표 2]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준 인식 응답

평가 항목	평균 점수
정규직 여부	4.38
고용 안정성(10년 이상)	4.32
적정 노동시간(야근 휴일근로 적은지 여부)	4.28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4.20
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4.17
개인 노력에 따른 숙련도 전문성 획득 가능성	4.10
개인 노력에 따른 조직 내 승진 가능성	4.06
소통 이뤄지는 수평적 문화	3.99
동료 간 협력적 관계 형성 가능한 환경	3.97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 일	3.96
'재미'가 있는 일	3.83
노동조합 유무	3.60
직장 규모	3.59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가진 '좋은 일의 기준'과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보편적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20~30대들은 '재미있는 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일', '스트레스 적은 일' 등 기준을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여전한 '정규직 여부', '고용 안정성' 등 기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 변화 방향 응답

평가 항목	평균점수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4.69
이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적은 사회	4.50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4.47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우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	4.39
현실적인 실업급여 등 실업 대책이 튼튼한 사회	4.31
노동조합 등 일하는 사람을 대표 대변하는 조직이 튼튼한 사회	4.07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일정 소득(기본소득)을 받는 사회	4.06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이직 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등이 꼽혔다.

총 7개 세부 질문 중에서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4.69 점),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4.47), '이직 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4.50) 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

Ⅲ. '좋은 일'과 '좋은 삶'의 연관성

1. 장래희망을 택했던 이유 분석

이 설문조사에는 응답자들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을 묻는 항목이 있었다. 먼저, 10세 전후에 생각한 주된 장래희망이 무엇²⁾이었는지 떠올리도록 한 뒤, 그 장래희망을 꼽은 주된 이유를 답하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기준 및 취업 가능성 인식 등에 따른 영향이 적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었다.

총 8개 항목에 대한 선택 결과(5,050개 복수응답)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1,371개, 27.1%)였다.

[표 4] 장래희망을 택했던 주된 이유(10세 전후 기준) 응답

응답 항목	응답 수(복수응답)		해당 항목 택한 응답자 비율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1,371	(27.1%)	53.5%
내가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755	(15.0%)	29.5%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1,079	(21.4%)	42.1%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558	(11.0%)	21.8%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434	(8.6%)	16.9%
성공에 따른 성취감이 큰 일이라 생각해서	403	(8.0%)	15.7%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231	(4.6%)	9.0%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권해서	219	(4.3%)	8.6%
전체	5,050	(100.0%)	197.2%

2) 응답자들에게 장래희망을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했는데 그 응답의 다양성이 상당히 컸고,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가 이번 조사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빈도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응답은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1,079개, 21.4%)였다. '내가 비교적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755개, 15.0%),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558개, 11.0%)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231개, 4.6%)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선택된 응답 중 하나였다.

응답자들 기준으로 집계해 보면, 복수응답 항목 중 하나로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1,371명)였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는 42.1%(1,079명)이었다. 이 항목의 분석 대상 응답자는 총 2,561명이다. 전체 응답자 2,686명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무 항목도 고르지 않은 사람이 125명 있었다.

2. 장래희망을 이룬 삶에 대한 인식 분석

이어서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따른 세부질문 8개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그렇다(4점)/보통(3점)/그렇지 않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된 내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였다. '매우 그렇다'(35.7%)와 '그렇다'(40.5%) 중 하나로 긍정 답변을 한 사람이 전체의 76.2%에 달했다.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에 대해 긍정 답변을 한 사람은 75.3%였다.

그에 비해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로 부정 답변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26.7%)였다. '가족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24.4%),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24.0%) 등도 부정 응답이 높았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직업을 희망할 때 그 일 자체의 특성만 생각할 뿐,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는 못 한다는 뜻이다.

[표 5]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 응답(명)

세부질문	긍정 응답			보통	부정 응답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하루 일정이 꽤 찬 채로 바쁘게 일한다	507	855	1362	664	415	148	563	97	2686
	18.9%	31.8%	50.7%	24.7%	15.5%	5.5%	21.0%	3.6%	100.0%
하는 일 자체 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869	1153	2022	422	132	72	204	38	2686
	32.4%	42.9	75.3%	15.7%	4.9%	2.7%	7.6%	1.4%	100.0%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	958	1089	2047	391	123	74	197	51	2686
	35.7%	40.5%	76.2%	14.6%	4.6%	2.8%	7.40%	1.90%	100.0%
돈을 충분히 번다	513	890	1403	723	305	170	475	85	2686
	19.1%	33.1%	52.2%	26.9%	11.4%	6.3%	17.7%	3.2%	100.0%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365	806	1171	763	425	232	657	95	2686
	13.6%	30.0%	43.6%	28.4%	15.8%	8.6%	24.4%	3.5%	100.0%
여가 시간에 음악·운동 등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긴다	413	895	1308	648	411	220	631	99	2686
	15.4%	33.3%	48.7%	24.1%	15.3%	8.2%	23.5%	3.7%	100.0%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	463	841	1304	628	397	246	643	111	2686
	17.2%	31.3%	48.5%	23.4%	14.8%	9.2%	24.0%	4.1%	100.0%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364	768	1132	672	500	217	717	165	2686
	13.6%	28.6%	42.2%	25.0%	18.6%	8.1%	26.7%	6.1%	100.0%

The Top of the World

IV. 응답자의 일 현황 분석

분석 대상 응답자들이 20~30대인만큼,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놓인 일 현황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응답자 중에서 20대는 1,479명(55.1%), 30대는 1,207명(44.9%)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005명(37.4%), 여성이 1,681명(62.6%)이었다.

[표 6] 분석 대상 응답자의 연령·성별(명)

	남성	여성	전체
20대	444	1,035	1,479
	30.0%	70.0%	100.0%
30대	561	646	1,207
	46.5%	53.5%	100.0%
전체	1,005	1,681	2,686
	37.4%	62.6%	100.0%

살고 있는 형태를 물었을 때 '비혼(미혼)/부모님과 거주'가 52.8%, '비혼(미혼)/독립적 거주'가 28.8%, '혼인(자녀 있음)' 11.0%, '혼인(자녀 없음)' 7.4%였다. 20대만 보면 비혼(미혼)이면서 부모님과 거주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65.7%로 높아졌고, 30대 중에서는 '혼인(자녀 있음)'이 22.6%, '혼인(자녀 없음)' 비율이 12.0%로 20대의 해당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표 7] 분석 대상 응답자의 거주 형태(명)

	비혼(미혼) /부모님과 거주	비혼(미혼) /독립적 거주	혼인(동거) /자녀 있음	혼인(동거) /자녀 없음	전체
20대	971	432	22	54	1,479
	65.7%	29.2%	1.5%	3.7%	100.0%
30대	448	341	273	145	1,207
	37.1%	28.3%	22.6%	12.0%	100.0%
전체	1,419	773	295	199	2,686
	52.8%	28.8%	11.0%	7.4%	100.0%

현재 하는 일을 묻자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

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이 1.6%였다. 20대만 따로 집계할 경우 직장인 비율이 72.2%로 낮아지고 '학생 또는 취업 중'인 비율이 19.5%로 높아졌다. 30대 중에서는 직장인이 84.7%였다.

[표 8] 분석 대상 응답자의 현재 하는 일(명)

	직장인 (피고용)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	프리랜서	일하지 않는다	자영업 (부모 사업체 근무 포함)	기타	전체
20대	1,068 (72.2%)	288 (19.5%)	32 (2.2%)	39 (2.6%)	17 (1.1%)	35 (2.4%)	1,479 (100%)
30대	1,022 (84.7%)	63 (5.2%)	53 (4.4%)	32 (2.7%)	26 (2.2%)	11 (0.9%)	1,207 (100%)
전체	2,090 (77.8%)	351 (13.1%)	85 (3.2%)	71 (2.6%)	43 (1.6%)	46 (1.7%)	2,686 (100%)

직장인으로 응답한 사람에게 종사 업종을 물었을 때, 사무직(49.4%)과 전문직(26.1%)에 종사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직(10.1%), 생산직(6.1%), 관리직(4.3%), 영업판매직(3.3%) 응답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9] '직장인' 응답자의 종사 업종(명)

	사무직	생산직	관리직	영업판매직	서비스직	전문직	전체
20대	516	57	42	29	120	304	1,068
	48.3%	5.3%	3.9%	2.7%	11.2%	28.5%	100.0%
30대	516	70	48	41	106	241	1,022
	50.5%	6.8%	4.7%	4.0%	10.4%	23.6%	100.0%
전체	1,032	127	90	70	226	545	2,090
	49.4%	6.1%	4.3%	3.3%	10.8%	26.1%	100.0%

사무직: 일반사무직, IT개발직, 비영리조직 근무, 금융회사 근무 포함
 생산직: 건설, 제조, 기술, 물류 업종 포함
 관리직: 시설, 인력 등
 서비스직: 교육서비스, 부동산, 통신 등 고객대면 업종
 전문직: 교사, 의료인, 군인, 디자이너, 연구직, 법률직, 회계직 등 포함

직장 규모는 '10인~99인 사업장' 43.2%, '10인 미만 사업장' 29.9%, '300인 이상 사업장' 14.7%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 12.2% 순서였다. 연령별 집계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20대(31.4%)가 30대(28.3%)보다 높았다.

[표 10] '직장인' 응답자의 소속 직장 규모(명)

	10인 미만	10인 이상 ~99인	100인 이상 ~299인	300인 이상	전체
20대	335	466	119	148	1,068
	31.4%	43.6%	11.1%	13.9%	100.0%
30대	289	436	137	160	1,022
	28.3%	42.7%	13.4%	15.7%	100.0%
전체	624	902	256	308	2,090
	29.9%	43.2%	12.2%	14.7%	100.0%

근로 형태를 물었을 때 '전일제'로 일한다는 응답이 합(97.9%)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응답의 합(1.9%)보다 월등히 많았다.(기타 0.2%)

[표 11] '직장인' 응답자의 근로 형태

	전일제 정규직	전일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기간제	전일제 근로계약 없음	파트타임 근로계약 체결	파트타임 근로계약 없음	기타	전체
20대	783	50	174	40	17	1	3	1,068
	73.3%	4.7%	16.3%	3.7%	1.6%	0.1%	0.3%	100.0%
30대	799	58	107	35	16	5	2	1,022
	78.2%	5.7%	10.5%	3.4%	1.6%	0.5%	0.2%	100.0%
전체	1,582	108	281	75	33	6	5	2,090
	75.7%	5.2%	13.4%	3.6%	1.6%	0.3%	0.2%	100.0%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였다. 다음으로 200만~3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32.8%, 300만~4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7.8%였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도 5.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집계를 보면 20대 중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7.8%로, '최저임금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비율이

65.1%로 높아졌다. 30대는 '300만~400만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42.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은 4.0%, '최저임금~200만원 미만'은 36.3%였다.

[표 12] '직장인' 응답자의 월 평균 급여(명)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200만원 미 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 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 만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 만	600만원 이상	전체
20대	83 (7.8%)	695 (65.1%)	249 (23.3%)	33 (3.1%)	6 (0.6%)	2 (0.2%)	1068 (100%)
30대	41 (4.0%)	371 (36.3%)	436 (42.7%)	129 (12.6%)	38 (3.7%)	7 (0.7%)	1022 (100%)
전체	124 (5.9%)	1066 (51.0%)	685 (32.8%)	162 (7.8%)	44 (2.1%)	9 (0.4%)	2090 (100%)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며 연장초과근로가 거의 없다'고 답한 사람이 35.4%, '주 41~48시간 일한다'고 답한 사람이 32.4%로 비슷했다. '주 49~5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답한 사람이 12.6%였으며, 법적 노동시간 한계를 벗어나는 '주 52~67시간'(13.3%), '주 68시간 이상'(4.0%)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표 13] '직장인' 응답자의 평균 근로시간(명)

	전일제 주40시간	전일제 주41 ~48 시간	전일제 주49 ~52 시간	전일제 주52 ~67 시간	전일제 주 68시간 이상	파트타임 15시간 미 만	파트타임 15~39 시간	기타	전체
20대	379	356	130	142	39	0	17	5	1,068
	35.5%	33.3%	12.2%	13.3%	3.7%	0.0%	1.6%	0.5%	100.0%
30대	361	321	134	136	45	5	18	2	1,022
	35.3%	31.4%	13.1%	13.3%	4.4%	0.5%	1.8%	0.2%	100.0%
전체	740	677	264	278	84	5	35	7	2,090
	35.4%	32.4%	12.6%	13.3%	4.0%	0.2%	1.7%	0.3%	100.0%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한 직장경험은 '1~2회'가 40.1%, '3~5회'가 47.6%, '6회 이상'이 12.3%였다. 20대는 '1~2회'가 51.4%, '3~5회' 41.8%, '6회 이상' 6.8%였고, 30대는 '1~2회'가 28.4%,

'3~5회'는 53.6%, '6회 이상'은 18.0%였다. 20~30대에 이미 3~5회 이상 직장경험을 한 사람이 상당수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 초년에 진입한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을 기준으로 '좋은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운다.

[표 14] '직장인' 응답자의 직장 경험(명)

	1~2회	3~5회	6회 이상	전체
20대	549	446	73	1,068
	51.4%	41.8%	6.8%	100.0%
30대	290	548	184	1,022
	28.4%	53.6%	18.0%	100.0%
전체	839	994	257	2,090
	40.1%	47.6%	12.3%	100.0%

V. 결론 및 제언

'좋은 일'의 기준은 각 사회의 상황과 가치관,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현 사회에 맞지 않는 '좋은 일'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20~30대는 업무 자체가 재미있는 일,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있는 일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적정임금과 복리후생, 성과 또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일, 퇴근 후 개인 삶에 대한 존중이 있는 일, 그리고 조직을 떠나서도 발휘할 만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일도 '좋은 일'의 상을 구성하는 주된 요건이었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에 따르면 좋은 일은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괴리가 존재할 때 개인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사회적 평판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서 그만둔다든지,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참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식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좋은 일' 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건 '좋은 일'에 맞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도록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 이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이다. 이 설문 결과를 포함한 전체 연구 결과는 연구보고서(희망리포트)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가칭)이 2017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 게임은 시민 개개인 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해 더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고,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부록 - 설문지

〈좋은 일, 공정한 노동2〉

'좋은 일 기준 찾기'에 참여해 주세요!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 사이 진행됐던 1차 설문조사에는 15,000명 이상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보다 상세한 '좋은 일'의 기준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결과는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요구안을 내놓는 데 활용됩니다. (*표 질문은 필수 항목)

PART 1. 기본 질문

1-1. 먼저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기타

1-2. 성별을 알려주세요.*

- 1) 남성(1)
- 2) 여성(2)

1-3. 살고 계신 형태를 알려주세요.*

- 1) 비혼(미혼)/부모님과 거주
- 2) 비혼(미혼)/독립적으로 거주
- 3) 혼인(동거)/자녀 없음
- 4) 혼인(동거)/자녀 있음

1-4. 근로 형태를 알려주세요.*

- 1) 직장인(피고용)
- 2) 자영업(부모 경영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포함)
- 3) 프리랜서
- 4) 일하지 않는다(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음)
- 5)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
- 6) 기타

〈1-5~1-10번은 직장인(피고용)의 경우만 답해 주세요.〉

1-5. 어떤 업종에서 일하시나요?*

- 1) 사무직종(일반사무직/IT개발/비영리/금융 포함)
- 2) 생산직종(건설/제조업/기술/물류 포함)
- 3) 관리직종(시설/제조/인력 등)

- 4) 영업판매직종
- 5) 서비스직(교육서비스/부동산/통신 등 고객대면)
- 6) 전문직종(교사/의료/군인/디자인/연구직/법률/회계 등)
- 7) 기타

1-6. 직장 규모를 알려주세요.*

- 1) 10인 미만
- 2) 10인 이상~99인
- 3) 100인 이상 299인
- 4) 300인 이상

1-7. 근로 형태를 알려주세요.*

- 1) 전일제(하루 8시간)-정규직
- 2) 전일제-무기계약직
- 3) 전일제 기간제(2년 이하 단위 근로계약)
- 4) 전일제 - 근로계약 없음
- 5) 파트타임 근로계약 체결
- 6) 파트타임 - 근로계약 없음
- 7) 기타

1-8. 월 급여 수준을 알려주세요.*

- 1) 최저임금(2016년 기준 전일제 1일 8시간 근무시 월 126만원) 미만
- 2) 최저임금 이상~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6) 600만 이상
- 7) 기타

1-9.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나요?(실제 근무시간/식사·휴게시간 제외)*

- 1) 전일제-주 40시간(연장·초과근로 거의 없음)
- 2) 전일제-주 41~48시간
- 3) 전일제-주 49~52시간
- 4) 전일제-주 50~67시간
- 5) 전일제-주 68시간 이상
- 6) 파트타임-15시간 미만
- 7) 파트타임-15~39시간

1-10. 현재까지의 직장 경험은 몇 번인가요?(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만 포함)

- 1) 없음
- 2) 1~2회
- 3) 3~5회
- 4) 6회 이상

PART 2. 어린 시절 꿈꾸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과 비교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1. 어린 시절(10세 전후)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

2-2. 당시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꼽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1)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2) 내가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3)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 5) 성공에 따른 성취감이 큰 일이라 생각해서
- 6)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7)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 8)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권해서
- 9) 기타

2-3. 당시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각 항목에 대해 답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루 일정이 꼭 찬 채로 바쁘게 일한다						
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						
돈을 충분히 번다						
가족,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여가 시간에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을 충분히 즐긴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2-3. 그밖에 당시에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에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주세요.(선택항목)

PART 3. 현재의 일은 아래 요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나요?

(현재 일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1) 고용안정 측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직장을 잃을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근로계약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체결되어 있다					

2) 임금과 복지 측면(현재 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한다					
향후 급여가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외의 추가적인 복리후생에 만족한다					

3) 노동시간 측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지 않다					
야근, 휴일근로 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					

육아 등 개인적 사정에 따른 노동시간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					
노동시간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있다					

4) 스트레스 측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성과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					
업무 상 만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					
상사·동료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					
퇴근 후 개인 삶에 대한 존중이 있다					
개인의 삶의 방식, 취향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없다					
학연, 지연, 개인 친분 등에 따른 차별 문화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조직적 시스템이 있다					

5) 업무 만족도(직성) 측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업무 자체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사회적·윤리적 가치관에 반하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율성이 많다					
승진·승급 등 조직 체계가 마음에 든다					
출산 육아, 질병 등 관련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데 제약이 없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측면*

	매우 그렇다 (아주 만족)	그렇다 (만족)	보통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불만족)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					
향후 승진, 승급 등 조직 내 성장 가능성이 있다					
향후 조직을 벗어나서도 발휘할 만한 전문성, 숙련도를 획득할 수 있다					

7) 현재 일(또는 가장 최근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PART 4. 현재 한국 사회의 '좋은 일'의 기준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 기준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탕으로 답해 주세요..)

1) 각 항목에 대해 답해 주세요.*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10년 이상)					
직장규모(대기업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 (상세 기준은 하단 별도 질문)					
적정노동시간 (야근·휴일근무가 적은지 여부)					
소통 이뤄지는 수평적 문화					
노동조합 유무(임금, 근로조건 개선 노력, 직원 이익 대변 조직)					
개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개인 노력에 따른 조직 내 승진 가능성					
개인 노력에 따른 숙련도, 전문성 획득 가능성					
동료 간에 협력적 관계 형성 가능한 환경					
사회적, 윤리적 가치관에 반하지 않는 일					
'재미'가 있는 일					

2) 위 항목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이란 월 평균 급여로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 기준)

1. 300만원 이상
2. 400만원 이상
3. 500만원 이상
4. 600만원 이상
5. 1000만원 이상
6. 기타

PART 5.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노동조합 등 일하는 사람을 대표·대변하는 조직이 튼튼한 사회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일정 소득(기본소득)을 받는 사회					
현실적인 실업급여 등 실업대책이 튼튼한 사회					
이직, 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					

PART 6. 그밖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은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 1) '좋은 일'의 기준 관련해서 더 남기실 의견
- 2) 연구 진행 방식 및 설문 항목 관련 의견
- 3) 기타
- 4)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추가 설문 또는 그룹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설문이 끝났습니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설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희망제작소(02-2031-219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일깨워준 것이라
The Young Foundation 24명의 재단
장정ANS SIX
기을
social innovation
공용서비스디자인프로
아시아 사회혁신
이벤트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이름다운 시니어
사회적
어떻게 함께
두번째 인생 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헌해 good fund
99%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사회적) 참여전파,
메니페스토 기업게 이상해요.

여행사 공군
문화예술을 희망당사제
김주희(가게) 황현CT강사
관동기
한정기
공공기관

동종희망본부
동종희망본부
동종희망본부
동종희망본부

사회적기업한포럼 도시재생
기동기(아카데미) 도시
마을이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정포럼
HUBERLEINERKALAHEN
다들기어
공공서비스디자인프로
이벤트

노시영림
노시영림
노시영림
노시영림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U3A
U3A

친구의정인
친구의정인
친구의정인
친구의정인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감사의지향
감사의지향
감사의지향
감사의지향

나는희망한다
나는희망한다
나는희망한다
나는희망한다

Think and Do tank
Think and Do tank
Think and Do tank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시민문화

I HOPE
I HOPE
I HOPE
I HOPE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이상해요, 오프트
이상해요, 오프트
이상해요, 오프트
이상해요, 오프트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좋은마을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Make Hope
Make Hope
Make Hope
Make Hope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